

# 퀘벡 협동조합 연수보고서

신협서울협의회  
퀘벡 연수단

## 목 차

I. 서론 .....	
II. 연수개요 .....	
III. 퀘벡주 사례 도시 현황 .....	
1. 퀘벡주	
2. 몬트리올	
3. 오타와	
4. 퀘벡시티	
IV. 독특한 퀘벡의 역사와 문화 .....	
1. 역사적 맥락에서의 퀘벡	
2. 퀘벡 협동조합의 역사와 모습	
V. 퀘벡의 사회경제 조직과 네트워크 .....	
1. 퀘벡의 사회경제 구성요소	
2. 퀘벡의 사회경제의 현재	
3.네트워크의 네트워크	
VI. 데잘당 실험	

## 목 차

### VII. 퀘벡의 방문 협동조합 현황 .....

#### ◎ 연대협동조합

1. 의료협동조합(타르소)
2. 의료협동조합(카티노)
3. 의료협동조합(아일머)
4. 장애인협동조합(우따웨 카티노)

#### ◎ 캐나다의 지역식품운동과 협동조합

5. 장애인 직업교육 이탈리아 음식점(제리듀심카페)

#### ◎ 소비자 협동조합

6. 등산용품 전문 협동조합(맥)

#### ◎ 학교협동조합

7. 몬트리올 경영대학원 협동조합(HEC-Montreal)

#### ◎ 농식품협동조합

8. 메이플 협동조합

#### ◎ 노동자협동조합

9. 맥주집 (라 바베리)

#### ◎ 데잘맹 신용협동조합

10. 데잘맹 연대경제금고
11. 데잘맹 박물관
12. 데잘맹 역사협회
13. 국제개발기구(DID)

### VIII. 시사점 종합

### IX. 결 론

### X. 부 록

## I. 서 론

- 캐나다는 한국신협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던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님이, 6. 25전쟁 이후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인 악순환을 목격하고, 한국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길은 값싼 구호품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임을 알게 되고, 이후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에 있는 '안티고니쉬'에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협동운동 '안티고니쉬'를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 1960년 부산에서 한국신협 최초의 '성가신협'을 설립하였다.
- 그로부터 55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비하면 930개의 단위신협과 58조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신협으로 발전하였고, 그 동안 수많은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 그러나 지금의 한국신협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한 국제 금융시장과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등으로 훼손된 신협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 어느 개인이든 조직이든 위기가 오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우선 내적으로 현재 처한 상황과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성공한 외부의 사례에서 그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직접 보고 배워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유효하리라 생각한다. 퀘벡 연수는 이러한 차원에서 준비되고 추진되었다.
- 또한 향후 신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체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요즘 우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와의 협동과 연대에서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퀘벡의 데잘맹신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발전한 사례를 공부하고자 하였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와의 협동과 연대가 한국신협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가치적 판단은, 아직은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단위신협에

서의 움직임이고, 전체 신탁의 합의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아쉬움이 남지만, 먼저 시작한 단위신탁이라도 데잘딩신탁과 같은 선진사례를 책이나 자료로 접하기 보다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와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번 연수목적이기도 하다.

## II. 연수 개요

### 1 연수 목적

- 20세기 초반부터 신탁이 특히 발전된 캐나다 퀘벡주의 선진지역 시찰
- 신탁을 주축으로 협동조합간 협동을 모범적으로 이룬 지역사회 기여 사례 확인
- 전통적인 신탁 부문 외 새로운 사회, 연대 금융제도 사례 학습

### 2 연수 일정

- 기 간 : '15. 6. 13(토) ~ 6. 21(일) [8박 9일]
- 방문지 : 퀘벡주 일대
- 연수자

소 속	성 명	연 락 처
강북신탁	백승재 이사장	010-5238-3241
논골신탁	유영우 이사장	010-3787-4514
상봉신탁	김재기 이사장	010-3731-2336
정릉신탁	박창완 이사장	010-3388-3609
북서울신탁	전재홍 전무	010-3341-4188
동작신탁	김현숙 상무	010-3106-9882

### 3 기대 효과

- 2012년부터 시작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에 신탁의 사회적 정체성 재확인 계기
-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신탁의 역할과 지역사회 기여 방식에 대한 교훈
- ‘협동조합 간 협동’에서 신탁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시사점 추출

## III. 퀘벡주 및 사례도시 현황

### 1 퀘벡 주

퀘벡은 160만km<sup>2</sup> 가 넘는 토지와 프랑스어권 인종 및 인구간 풍부한 문화적 융합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정체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프랑스어를 제1국어로 하는 유일한 캐나다 지역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로서의 퀘벡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공공서비스로 유명하다. 보편적이고 무료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교육제도는 모두에게 열려있고 사회/공동체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변화무쌍한 퀘벡의 경제는 천연자원 개발을 바탕으로 하며 정보통신 기술과 다른 첨단분야도 함께 하고 있다.

- ▷ 주도 : 퀘벡시티
- ▷ 총 면적 : 1,667,712km<sup>2</sup> - 프랑스 영토의 3배, 한국 영토의 7배
- ▷ 행정구역 : 17개 권역 및 104개 구역
- ▷ 인구 : 8,155,334명 (2013년 기준)
- ▷ 인구 밀도 : 6.3명/km<sup>2</sup> (2013년 기준)
- ▷ 정치체제 : 의회민주주의(단원제 125석)
- ▷ 종교 : 카톨릭-83.4%, 개신교-6.9%, 기타
- ▷ 화폐단위 : 캐나다 달러
- ▷ 시차 : 한국시 - 13시간

## 2 몬트리올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프랑스어를 쓰고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간혹 북미의 파리라 불리기도 한다. 인구는 190만 명(인근 대도시권역 포함 400만 명)으로 퀘벡시티에서 남서쪽으로 250km, 오타와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 특이사항

- 몬트리올 지역은 캐나다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관의 허브인 이 페트로폴리탄 지역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이 바로 데잘맹협동조합은행 데잘맹그룹의 몬트리올 본부(연합회의 본부는 데잘맹 신용협동조합의 시작인 Levis시에 있다) 몬트리올의 금융중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일대를 데잘맹컴플렉스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겨울이 긴 지역의 특성상 겨울시즌에 몬트리올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생활을 위해 데잘맹 콤플렉스 아래 거대한 지하도시를 만들어서 수 많은 문화행사를 지원, 유치한다. 데잘맹건물 앞에는 ‘데잘맹 플레이스’라는 광장은 시민들을 위해 언제나 개방되었고 지역사회를 넘어서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데잘맹의 이미지를 선양하고 있다. 거대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친숙하게 결합되어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이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데에 그 시사점이 있다.
- 현재 100년이 넘는 데잘맹 금융그룹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일회성 견학을 넘어서서, 데잘맹 신용협동조합의 그 첫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협동조합이 발달한 퀘벡 지역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잘맹 금융그룹의 과정을 반추하고, 앞으로 데잘맹 그룹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소통의 채널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둔다.
- 몬트리올은 서울과 규모나 인구구성, 도시의 역동성이 비견될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화를 극복한 사례를 찾아 금융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이디어를 얻는다. 몬트리올 서 남부 지역은 대표적인 공장폐쇄 후 낙후된 지역인데, 공동화된 지역에 아프리카 계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인종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 곳을 지역개발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협동조합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지역개발의 사례를 만들었다. 서울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몬트리올이 지역 개발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공동체 개발에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 3 오타와(가티노)

캐나다의 수도로 온타리오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1854년 새로운 설계에 의하여 도시를 건설, 오타와강의 이름을 따 오타와로 개칭하였다. 1858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캐나다의 수도로 결정됨. 인구는 1백만 명 가량이며, 오타와강과 리도운하의 합류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영국 문화와 프랑스 문화의 최접경지이며 국회의사당은 1800년대 중반대 건축되었으며, 160년 된 재래시장인 바이워드 시장이 있다

## 4 퀘벡시티

퀘벡주의 주도로 인구는 약 51만 명이다. 인구의 95%가 불어를 사용하며 세인트로렌스 강 하구에 위치한다. 북미에서 유럽인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 중 한곳으로 퀘벡이라는 지명은 인디언말로 갑자기 좁아지는 지점을 의미한다. 올드퀘벡 역사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다.

### 특이사항

- 퀘벡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데잘맹그룹내 연대경제금융 “사업 윤리/협동조합적인 의사결정”을 가장 중요한 투자 및 대출 기준으로 잡고 있는 아주 건설한 조직이다. 거대 금융기관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잘맹그룹 전체 기조에서 곳곳하게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을 고수하며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대표 주자이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데잘맹그룹 전체의 방향도 협동조합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다.
- 지역사회를 간과하고 대형화 금융기관화 일변도로 그 노선을 정한 한국신협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독특한 퀘벡의 역사와 문화

### 1 역사적 맥락에서의 퀘벡

퀘벡은 북아메리카 지역의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독특한 지역이다. 행정적으로는 캐나다연방에 속한 하나의 주이지만 영어권 캐나다와는 달리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며 종교도 개신교가 아닌 카톨릭 문화권이 중심이 된다. 이처럼 '매우 특이한 사회'의 시작은 1534년 7월 24일 자크 카르띠에 선장을 앞세운 프랑스가 발을 디디면서부터이다. 이후, 1604년 사뮈엘 드 샹플랭 일행이 편지만에 닷을 내리고 영국과의 긴장 속에 모피 교역을 시작하면서 퀘벡은 초기의 형태를 갖추어간다. 샹플랭 구상한 식민지는 다른 유럽인들의 것과는 달리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우호와 친선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였고 이 덕분에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까지 오히려 인구나 응집력에서 백인보다 우월했던 인디언들은 17세기 후반 식민지 사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공업화가 시작될 때까지 급속도로 영향력이 쇠퇴했다. 이처럼 원주민 세력이 정치, 경제적으로 힘을 잃고 유럽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19세기 중반 이후 퀘벡 지역의 협동조합과 사회경제가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과 상관없이 '유럽식으로' 시작되었다는 반증이다. 법적/제도적 배경위에 만들어지는 조직과 계약을 통한 백인의 자조 방식은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던 공유의 철학과는 그 결이 달랐다.

오랜기간 영국과 충돌해온 프랑스는 1713년 위트레히트 조약에 따라 북아메리카의 주도권을 영국에 넘겨주었고, 1775년 영국은 프랑스계 주민들이 처음부터 정착했던 지역들 차지하면서 이들을 추방하였다. 퀘벡의 정체성을 구성한 이 역사적 사건의 부정적 경험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또한 영국계 캐나다와 프랑스계 캐나다에서 각기 다른 색조와 뉘앙스를 띄게 하는 원인으로 남았다.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영향력을 장악하였지만 미국의 저항과 식민지 통치비용의 증가는 캐나다연방 안을 도입하게 만들었다. 연방이 성립되었으나 퀘벡인들은 언어와 종교의 차이가 그들에게 핍박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 우려는 현실화되어 퀘벡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캐나다의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도시가 발전함에도 그 영광은 영어권 주민들에게 돌아갔고 프랑스어권 주민들은 대부분 저임금 육체노동자의 처지로 밀려나고 말았다. 생존을 위해 민중들은 자조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조선공, 부두 인부, 건설 노동자 등이 처음으로 근대 노동조합의 선구가 되는 상호 조직을 결성했다.

19세기 말 퀘벡 정부가 철도 건설 자금을 프랑스 금융시장에서 빌리면서 끊어졌던 프랑스 본국과 퀘벡간의 교류가 재개되었고 이후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부분도 프랑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른 한편, 영국은 퀘벡을 지배하에 두면서 고유의 언어와 종교를 허용하고 독자적인 자치정부도 허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계 퀘벡인들이 받은 경제적 차별은 민족주의를 촉발시켰다. 퀘벡의 카톨릭은 프랑스계 퀘벡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회문화기관으로 커져갔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환경과 사회기반이 조직되었다. 그 결과 카톨릭의 보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퀘벡은 근대화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었다.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낀 일부 개혁인들은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캐나다 최초의 몬트리올 고등상업학교(오늘날의 HEC-몬트리올) 설립을 통과시켰고, 카톨릭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종교적 교리에 따라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노동운동을 조직하고 사회 참여에 나섰다.

1920년대 퀘벡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주가 되었지만 그 혜택은 퀘벡인들의 손을 벗어나 있었다. 게다가 대공황과 2차대전은 그런 퀘벡인들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고난 속에서 집권한 자유당 정부는 여러 개혁들을 실현시켰고 1944년 보수적인 국민연합에게 정권을 넘겨주기 전까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훗날 있을 '조용한 혁명'의 징후를 보여주었다.

1960~70년대의 '조용한 혁명'은 퀘벡 현대사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꼽는다. 1960년 6월 총선거로 집권한 장 르사쥬의 퀘벡자유당은 강력하게 공공부문 및 사회경제적 개혁 조치를 시작하고 퀘벡의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었다. 이 뿐만 아니라 퀘벡의 사회문화를 지배하던 가톨릭교회를 종교 영역에만 영향력을 한정시켰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정책에 힘입어 교육기관 및 학생 수가 급증하

였고, 이에 발 맞춰 행정기관 및 기타 사회시설들이 증가하였다. 이는 일자리의 증가와 퀘베크인들의 평균소득 증가를 의미했다. 뒤이어 정부는 외국자본이 지배하던 기간사업망을 국영화하고 프랑수어권 주민들의 사업 성공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통제권도 높여갔다.

한편, 퀘베크의 근간이었던 가톨릭이 약화되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의 소비주의에 동화되고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에서 출발한 민족주의자들의 분리·독립운동이 화두로 떠올랐다. 폭력과 정치적 도전으로 그들의 독립요구는 지속되었고 최근 치러진 1995년 10월 30일의 주민투표에서 1.2%라는 간발의 차이로 다시금 좌절되었다.

퀘베크의 '조용한 혁명'은 혁명이라기보다는 거버넌스에 집중된 정부 주도의 민족주의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와 퀘베크의 다수 정치 계급에게 국가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후 퀘베크 사회의 전개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국가와 사회의 상호관계가 내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조용한 혁명'이래 지난 50여 년간 퀘베크에서 프랑수어권 주민들은 경제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조건 속에서 협동조합과 상호부조 조직들도 여러 분야에서 규모와 영향력을 키워갔고 비영리 결사체 운동 역시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한국처럼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한 퀘베크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기준 4만 4,428 캐나다달러에 이르고 2009년 기준 퀘베크 전체로 2만 6,031달러에 이르고 있다. 수치상으로도 보아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의 2배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1960년대 '조용한 혁명' 이후의 퀘베크를 퀘베크모델로 부르기에 앞서 동일한 원리의 자본주의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사회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작동방식이 다르고 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퀘베크의 발전양상을 '뉴딜정책'의 후속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 국가가 당시 처한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피상적 판단임과 마찬가지로이다.

퀘베크의 '조용한 혁명'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퀘베크모델은 공업화의 초기 조건과 국가의 추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동아시아의 개발국가 모델, 특히 한국의 모습과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국가를 동원하여 단기간에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퀘베크는 한국과는 달리 반공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정부이자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자유주의자들의 성장 연합이 주체 세력이라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퀘베크모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족주의 성향을 공유한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북아메리카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조직노동의 존재와 프랑수어권 대중의 지지를 업고 상호 경쟁하면서 연합한 일종의 '경제성장-복지국가 병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퀘베크 협동조합의 역사와 모습

퀘베크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한 세기 반 이상 사회경제가 실질적으로 존속해왔지만, 공식 담론으로 명백하게 언급된 것은 20년밖에 안 된다. 1995년 이후에서야 상당수의 활동가 및 정책결정자, 연구자가 사회경제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년간의 퀘베크의 사회경제 발전을 '레베끄'의 견해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다섯 시기로 나뉜다.

### 1) 도시공제회와 전통 엘리트로부터 독립적인 사회경제의 출현: 1840~1900

19세기 중후반 퀘베크 사회경제 영역의 지배적 형태는 도시 지역 노동자계급의 공제회였다. 약 253개의 공제회에 가입된 15만 명의 회원은 당시 도시 성인 인구의 약35%를 차지했다. 이들은 노동자계층 안에서 자율성과 연대, 자치의 가치를 키워가며 전통적인 프랑수어 캐나다인 엘리트들과는 다른 자율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국가는 사회정책에 개입하지 않았다. 농촌에서는 가톨릭 성직자 엘리트들의 영향력에 종속된 보수적인 사회경제 영역이 농업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 2) 신용조합과 가톨릭계 후견인 주도 사회경제의 변성: 1900~30

농촌은 물론 도시 지역까지 가톨릭교회와 연계된 전통적 엘리트가 사회경제 조직을 지배했다. 이전 시기의 자율성을 상실하였고 당시 확산된 민중금고도 가톨릭교회라는 사회적 권위체의 후견을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 3) 코포라티즘 성향의 사회경제: 1930~60

앞 시기의 맥을 이어 가톨릭을 사상적 기초로 하였다. 이 시기는 농업·저축·신용



부문뿐만 아니라 소비자, 주택, 학교와 같은 새로운 영역의 협동조합 형태가 크게 성장하였다. 가톨릭 중심의 사회경제와 보다 세속적인 사회경제간의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나타난 시기이며, 2차대전 이후에는 가톨릭 계열의 헤게모니가 기울기 시작하여 다원주의적 견해와 프로젝트가 나타났다.

#### 4) 경제민주주의 성향의 사회경제: 1960~90

전통적 코포라티즘과 민족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다원주의 환경을 향한 사회경제의 진화가 주류를 차지했다. 이 시기는 근대민주주의가 전 사회영역과 지역에서 모두 나타났고 국가의 개입이 두드러졌다. 경제민주주의 성향의 협동조합과 경제민주화를 선호하는 새로운 성향의 협동조합 조류가 양립했으며, 급속한 사회 변동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 5) 사회·연대경제의 공식적 인정: 1990~최근

시민사회와 정치권 양쪽으로부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보다 공식적인 인정이 나타난 시기이다. 이시기 나타난 주요 사회경제 조직은 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 경제 활동 결사체, 노동기금 및 기타 금융 수단으로 나뉘볼 수 있다. 사회경제가 점점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역동적으로 분화되면서 그만큼 진전을 이루는 동시에 긴장과 갈등도 동반하였다.

2013년 10월에 제정된 퀘벡의 사회경제법에 따르면, 사회경제 영역에는 그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 또는 교환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조직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사회경제기업은 대부분 포괄적인 지역 및 부문별 네트워크의 지지를 받는 두 개의 대형 단체, 즉 사회경제대책반(상티에)과 퀘벡협동조합·상호조합위원회(CQCM)로 조직화되어 있다. 하지만 레베크를 비롯한 퀘벡의 연구자들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이 세 가지 유형에다 노동자 기금이라는 특유의 사회·연대금융 조직을 더해 4개의 주요 부문이, 그리고 만약 공익 활동에 종사하는 민간 재단까지 포함한다면 모두 5개 부문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 V. 퀘벡의 사회경제 조직과 네트워크

### 1 퀘벡의 사회경제 구성 요소

- 퀘벡의 사회경제 영역 구성 (광의)
  -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비영리 조직, 노동자 기금, 공익(민간) 재단
- 2013년 10월, 사회경제법이 의회를 통과. 퀘벡의 기존 협동조합법과 별개로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법이 제정됨
- CQCM - 기성 협동조합 진영
  - Chantier - 새로운 사회경제 진영의 타협의 산물
- “사회경제”란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및 교환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
- “사회적 목적”이란 그 구성원들 또는 공동체의 복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기여하는 바를 가리킴
- “사회적 기업”이란 협동조합, 상호조합, 비영리조직 방식으로 운영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및 교환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함

### 2 퀘벡의 사회적경제의 현재

#### 1) 퀘벡 사회적경제의 현재

- 퀘벡 사회적 경제는 크게 협동조합과 시민사회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주 정부 내 경제사회부, 지역고용부와 관계하면서 법적으로는 협동조합법과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의해 규율됨.
- 협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소비, 생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퀘벡지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음. 한편 상티에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진영은 퀘벡의 사회적경제 역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 자본불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성장 발전해왔음.
- 퀘벡 지역고용부의 통계에 의하면 퀘벡 지역에는 7,000개 이상의 공동체와 3,300개 이상의 협동조합, 1,000개 이상의 데이케어센터가 있으며, 사회적경제 부문에서만 25,000명이 넘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들이 창출하는 매출은 연간 약 17조 원을 넘는다고 함. 이는 퀘벡 주 내 총생산의 약 8%를 차지함.

- 캐나다 퀘벡 콩코르디아 대학의 멘델 교수는 이들 양 진영이 1996년 탄생한 소규모의 연대협동조합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게 되는데, 소규모연대협동조합들은 거대화된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상티에는 가입하고 협동조합연합회에는 가입하지 않자, 상티에가 협동조합을 뺀어간다고 비난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화해했다고 평가함.

## 2) 협동조합 부문의 현재

-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1906년 제정되었으며, 법 제정 이래 퀘벡지역의 협동조합은 퀘벡협동조합연합(CQCM) 아래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사업자, 연대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15개의 부문별 연맹과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11개의 지역연합인 CDR로 구성되어 있음.
- 특이한 것은 퀘벡의 총인구가 780만 명인데 비해 조합원은 880만명에 이르고 있음. 이는 조합원으로 중복가입한 주민의 숫자를 더한 것으로 판단됨. 퀘벡 지역의 협동조합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퀘벡 경제사회부는 조합원 중심의 조직운영과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주도자 그룹의 존재를 꼽고 있음.
- 퀘벡 주 정부는 1985년 이후 현재까지 협동조합진영과 협동조합의 개발을 위한 협약을 지속추진, 갱신하고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일반기업에 비해 오랫동안 생존하며 경제가 취약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현재 퀘벡지역 협동조합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1996년 정상회담 이후 활성화된 연대협동조합으로 하나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형태의 조합임.

## 3) 상티에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

- 상티에는 1995년 퀘벡 여성운동계가 주도한 '빵과 장미' 행진 이후, 1996년 '퀘벡 경제정상회의'에 지역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이 초대되면서 시작하였음. 상티에는 주 정부의 재정위기와 실업극복 전략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기구로 출발하였다가 1999년 상설기구로 전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은 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음.
- 상티에는 금융,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체 부서와 협력조직이 있으며 CEDCs, CLD, CDR과 같은 혁신적 조직들과 훌륭한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있음.

- 현재 상티에는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사회적기업 섹터별 네트워크의 대표자들, 사회적경제 (개발)지원 기관의 대표자들, 사회적경제의 지역별 대표자들, 협동조합 운동의 대표자들, 기타 사회적 운동의 대표자들(여성운동, 노동운동, 지역사회개발 등)로 총 32명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
- 상티에는 퀘벡 정부의 주요 사회 경제적 이슈와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 혁신은 현재 진행형임.

## 3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 chantier 이전에는 협동조합 간 협력
  - 1996년 이전에는 협동조합운동(association cooperative)이 매우 강력. 1940년 이래로 오늘날의 CQCM이 존재. CQCM이 퀘벡 내 전체 협동조합의 이익을 하고 보장함. 여성, 청년, 노조운동도 있긴 했지만 네트워크적인 기능은 1996년 경제위기 이후. 일례로 젊은이(활동가)들이 응집하여 문건, 비디오제작 등 교육의 도구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통해 네트워크화 되었음.
- 개별협동조합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
  - 협동조합 운동(mpuvement cooperative) 개별협동조합에게 발전의 도구를 마련해 주어야 함. 지역차원에서 퀘벡의 CDR 같은 중간조직은 엑셀러트하게 기능. 퀘벡의 CDR 같은 협동조합을 창업할 때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 협동조합별 맞춤형 지원이 진행됨.
- 시민단체, 노동운동, 협동조합 등의 조정 및 네트워크 방안
  - 사회적경제도 사회적운동의 일환으로 봄. 노동조합측(진보주의자, 휴먼니스트, 사회적정의 추종자 등으로 구성)은 쉽게 동의가 되었는데, 협동조합 상층부는 저항이 있어 함께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 첫째 우리가 협동조합을 대표하지 정상회의 참여자들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식이었고 둘째는 비영리기업이 새롭게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부상하는 문제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변상황과 사회적인 운동이라는 목표지향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양측의 협력이 가능했음.
  - 특히 노동자 운동은 여러 가지 비전을 함께 공유했는데. 공유한비전은 민주적인 가치들, 사회적정의, 지속적인 발전, 환경과 같은 비전 등을



노동조합이 꿈꿨기 때문에 96년 TF때 발아가 되었음.

- 몇 주 전 의회에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 목적, 특징 등이 수록. 다자간협력에 대한, 이해하기 쉽게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들 간에 토론의 장을 만든다는 것이 주 내용. 국가가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법률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것임.

○ chantier와 CQCM의 관계

- 두 조직은 협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갈등이 존재함. 신규법에 의해 두 조직이 강제로 결혼하는 모양이 될 것임.

- CQCM은 협동조합만 대표하는 배타적 기구, chantier는 노동조합과 더 관계가 깊지만, chantier는 모두에게 열려 있음.

○ 데잘댕(Desjardin), 농협연맹은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글로벌한 그룹이 되었음. 조직이 커지면서 자기정체성 유지방법이 관건.

- 규모 그 자체보다는 협동조합이 어떻게 규모를 키우느냐가 문제인데, 내부에서 반성을 하고 있음. 금융위기때 Desjardin이 많은 상업적 투자를 하면서 타격을 받았고. 그 이 후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자기반성을 하고 있음.

○ 전통적인 협동조합들이 90년대 이후에 생긴 연대협동조합 지원방법

- CQCM에 속해 있으니까 그냥 조직 내에서의 지원이 있는 것이며, 특이한 건 없음.

○ 연대협동조합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첫째, 몬트리올 같은 경우 환경친화적인 식량가게(이 자체가 연대협동조합)를 열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한 로컬푸드의 공급이 가능.
- 둘째, 퀘벡은 의사들이 부족한데 연대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의사들에게 멤버십을 부여하고 의사들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의회에 상정중인 새로운 법안은 공공조달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예를 들어 정부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물품소비를 촉진시킴.

<수치로 본 퀘벡의 협동조합 운동>

- 3,300개의 협동조합과 상호(공제) 조합
- 이 중 비금융부문 협동조합은 2,860개
- 880만명의 조합원( 개인과 사업체)
- 9만 2,000개의 일자리
- 256억 달러의 수입
- 1,730억 달러의 자산
- 전통적 사업체보다 훨씬 높은 생존율

생존율	협동조합	전통적 사업체
5년 뒤 생존율	62%	35%
10년 뒤 생존율	44%	20%

- 60%의 일자리가 지역 협동조합에 위치
- 40%가 퀘벡, 몬트리올, 라발 등 도시지역에 위치
- 16개 비금융부문(일반)협동조합이 75년 이상 존속하는 지속성
- 전통적 사업체 보다 일자리 만드는 능력이 훨씬 뛰어남

**VI. 데잘댕 실험**

(1) 개요

① 데잘댕 설립 배경

- 3000% 폭리에 허덕이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생긴 '민중금고'
- 1900년 12월 6일 알폰소 데잘댕(Alphonse Desjardins)은 그를 지지하던 시민모임과함께 레비에서 '인민금고' 설립으로 시작됨
- 데잘댕 회원 수는 퀘벡 주 기준 1915년 23,614명에서 2000년 5,068,143명으로 증가했으며, 온타리오주가 포함된 2010년에는 총 5,800,000명임.(전체800만명 중 약70% 차지)

## ② 현황

- 설립역사가 오래되고 튼실한 금융기관 : 현 데자르탱 그룹의 최고경영자 모니크 르루 (Monique Leroux, 2008년부터 이끔)
  - 총자산 1901억달러(2011년 12월 31일 기준, 218조원)
  - 캐나다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6번째 규모의 금융협동조합
  - 퀘벡내 가장 큰 금융그룹
  - 세계50개 금융기관중 16번째로 안전한 기관으로 랭크 (글로벌 금융잡지 2012년 순위)
  - 캐나다내 40만 사업자를 위한 혜택
  - 캐나다를 포함 고용(4만6천명), 임원(5,366명)
  - 지역사회에 8천 1백만불 지원(2011년, 기부 및 스폰서)
- 캐나다를 넘어 국제적 서비스
  - 888개의 영업점, 2,599개의 ATM기
  - 40개의 데자르탱비즈니스 센터
  - 플로리다은행과 3개 지점
  - 캐나다내 대규모 금융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20개이상의 단체 및 비즈니스단위
  - 국제개발데자르탱(DID)를 통한 25개국의 개발도상 및 신흥국가에서 활동
  - 퀘벡 내 온라인과 모바일은행 선도자
- 4가지 사업부문 : 국가내 가장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중의 하나
  - 재산관리, 생활 및 건강보험
  - 재산 및 상해보험
  - 개인서비스
  - 비즈니스서비스

## ③ 운영상 특이사항

- 다달이 회원들이 10센트씩 회비를 모아 자산 마련!
  - 데자르탱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강조함. 17곳으로 나뉜 각 지역 데자르탱에서 255명의 대의원을 포함해 모두 5900명의 선출직을 뽑음. 연차 총회에는 1300명의 지역 조합원이 참석해 경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함
  - 지난해 조합원들한테 4500억원의 배당을 실시함.  
(ex-6만5000달러의 주택대출(모기지)을 받은 조합원의 경우 1년 동안 납입했던 이자총액의 16%에 해당하는 300달러를 배당으로 돌려받음)
  - 데자르탱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조합원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중시한다. “소비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민들에게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성을 심어줌.
- ## ④ 역할 및 기능
- 데자르탱은 퀘벡주에서 가장 큰 거대 금융기관이자 가장 안전한 은행 20위에 들어감,
  -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잃지 않는 모습이 중요
  - 데자르탱 조합원의 32%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은 캐나다 은행 고객 가운데 농촌 거주자가 평균 2%에 그치는 점과 크게 대비됨.  
다른 은행들이 수익성 낮은 농촌 점포를 폐쇄할 때 데자르탱은 거꾸로 인수에 나서며 조합원한테 다가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김
  - 타 협동조합 탄생의 든든한 재정적 백그라운드 역할(이윤보다 사업성고려)

### [다양한 사업분야]

- 보험 : SACP (Soci t d'assurance des caisses populaires)
- 신용 서비스 : 투자, 자산관리, 부동산계획 등의 회원 요구에 부응
- 투자 펀드(기금)
- 투자 : 조합 미션에 따라 퀘벡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유망사업에 투자
- 중개업
- 국제개발 : 개발도상국을 돕는 시스템 개발

### [대외 지원활동 및 사회적 영향]

- 데자르맹 금융보증기관(DFS) : 홈케어 서비스 담당하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그 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보조금 제공
- 데자르맹 국제 개발(DID, Development International Desjardins) : 2011년 현재 33개나라의 지역공동체 금융에 투자와 기술적 지원을 수행

### [데자르맹의 협동 활동]

- 환경친화적교통
- : 가스(유류)소비 저감, 업무관련 여행축소, 대안교통 장려
- 공정무역 및 윤리적 소비
- : 윤리적 구매 장려, 인증된 공정무역커피 소비증대
- 유기농업
- : 지역사회지원농업 장려
- 잔류물질의 에너지효율 및 관리
- : 환경적 책임에 기초한 건설, 에너지효율장비 장려, 잔류물질관리프로그램 구현
- 사회 및 지역사회 개입
- : 잉여식품재분배, 직원의 사회적책임 고양, 데자르맹 이해당사자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에 대한 인식제고

## VII. 퀘벡 주 협동조합 개별 방문 현황보고

### 1. 의료협동조합 - 타르소

방문 일시 : 2015. 6. 15(월) 9:00~11:00

방문 장소 : 타르소 의료협동조합 회의실

담당자 : 타르소 시장, 초대창립자, 현 이사

현황 및 특징 :

- 2005년에 지역에 3명의 의사 중 2명이 떠나고 1명의 의사만이 남음으로 인한 공백발생
- 2500명의 주민 중 600명의 주민 참여로 협동조합(연대협동조합<sup>1)</sup>)을 만들기로 결의
- CDR(지역개발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컨설팅을 받음.
- 최초 출자금은 50불로 시작. 경비절감과 접근성을 원스텝으로 하기 위해 진료소, 약국을 한 건물에 통합하려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여 출자금을 50불씩 추가 부담함.
- 데잘맹신협으로부터 매년 2,000만원씩 5년 동안 1억 지원받음, 여의사, 보조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해 2억5천만의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데잘맹신협에서 8천만원 지원받음. 지역사회에서 600만원, 회원90명이 100만원씩 후원, 사기업이 2천만원 지원
- 2007년 첫 진료는 600명으로 시작. 현재는 1400명이며, 년 진료인원은 4000명에 이름
- CDR은 의료협동조합에 대해 6개월 ~ 2년 동안 지원과 디자인, 컨설팅으로 지원함.
- 캐나다는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들이 미국의 영리의료에 의한 유혹에 개인병원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의사를 구하지 못해 파산하는 협동조합이 있기도 함.

시사점 :

-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정직하게 성장한다는 논리를 증명한 협동조합이며, 마을의 리더쉽(시장 등)이 적절히 발휘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주정부 기금, 데잘맹신협의 기금지원, 기타 사회연대기금 등의 지원에 의하여 초기에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였음.

1) 퀘벡에서 특징적으로 발달된 협동조합 형식. 보통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퀘벡 식 표현으로 기본적으로 세 부류의 조합원으로 분류되는데. ①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이용자조합원 ②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조합원 ③협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공유하는 개인과 조직으로서 후원자조합원으로 구분됨.

□ 한국신협외의 시사점

- 신협 사회공헌재단의 역할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높은 영역(의료, 햇빛발전소, 교육, 돌봄, 학교 등)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함.
- 이를 위한 신협의 별도 여신 상품 및 기금 개발 필요(법과 제도 개선)



## 2. 카티노 의료협동조합

- 방문 일시 : 2015. 6. 15(월) 13:00~14:00
- 방문 장소 : 카티노 소재 멕시코 식당에서 간담회
- 담당자 : 리사(카티노 지역개발협동조합 활동가 겸 협동조합 이사)
- 현황 및 특징 :
  - 2005년 설립. 인구 18,000명 중 8,000명이 가입하여 출발한 연대협동조합
  - 300평의 건물에서 진료시작. 매일 건물의 임대료 등 시설비 부담을 줄여 적자를 막기 위하여 조합비 매월 10만원 납부
  - 월 조합비는 납부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때문에 인근 도시로 무료 진료를 받는 조합원이 증가하면서 조합원 탈퇴로 이어지고, 2007년 의사의 연봉(1억 5천만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의사가 떠남.
  - 현재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시사점
  - 도심과 가까워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절실하지 않았고 수요조사가 미흡하였음.
  - 초기 시설에 대한 과다 투자에 의한 적자 누적이 원인(건물임대, 의사, 간호사 등)
  - 운영자금 조달이 원활치 못하면서 오는 유동자금 경색이 누적 적자 가속화 함.
  - 의료와 재택, 돌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사업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단순히 의료협동조합에 의존한 사업경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음.(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미비)

### 3. 아일머 의료협동조합

□ 방문 일시 : 2015. 6. 15(월) 14:00~15:00

□ 방문 장소 : 카티노 소재 멕시코 식당에서 간담회

□ 담당자 : 폴 시마(이사)

□ 현황 및 특징 :

- 아일머는 캐나다연방의 수도인 오타와에서 강 건너 가까운 지역으로, 인구는 4만명 정도인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주민의 필요에 의한 설립보다는, 지역의 한 의사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병원을 인수하면서부터 출발하였고, 의사가 협동조합에 근무한다는 조건이었음.
- 2001년 9월 정식 인가 이후 협동조합이 발전하여, 11명의 의사를 두게 되었으나, 9명의 의사가 개인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탈퇴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설립 당시 출자금과 연방정부와 우따웨-로랑띠드 지역개발협동조합(CDR), 데잘맹신협 등의 지원으로 시작하였고,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시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민자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 우따웨 앵블란스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한 심장마비 응급환자 연락망 구축, 당뇨병과 고혈압 등과 관련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였음.
- 1만명의 조합원에 매년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 현재 출자금은 5억원에 년 매출 약 6억원의 안정적인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비록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출발을 아니었으나, 초기 설립 당시의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정부, 데잘맹신협, 지역개발협동조합의 지원 등에 의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음.
- 단순히 의료협동조합 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 함.
- 한국의 경우, 의료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장례 및 사회서비스 관련 협동조합들과 협

동과 연대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협동조합을 개발하며, 이를 안정적인 사업운영의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신협의 시사점

지역사회 밀착형 관계금융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음.

### 4. 장례협동조합- 우따웨 가티노 장례협동조합

□ 방문일시 : 2015. 6. 15(월) 16:00~18:00

□ 방문장소 : 우따웨 장례협동조합 건물

□ 담당자 : 폴시마(이사)

□ 현황 및 특징:

- 1979년 지나친 장례비용을 요구하는 미국 사설업체에 대항할 목적으로 설립.
-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이며, 퀘백주에는 28개의 장례협동조합이 있음.
- 한 건물에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납골당, 화장장, 장례용품 판매, 영결식장, 식당 등의 시설이 함께 있어, 원스톱으로 장례절차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있음.
- 첫 들어가는 입구에 납골당은 파산한 장례식장에 보관된 납골묘와 납골당 임대료 지불이 불가능한 가난한 사람들의 납골묘도 보관하고 있는데, 형편이 나아져 임대료를 지불 할 때 까지 보관하고 있었음.(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 일반장례비용 1200만원, 협동조합 조합원은 380만원에 해결됨.
- 장례용품은 지역의 노인이나 예술가들이 직접 제작한 수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관을 제작할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무로 만들며, 그곳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 생태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진은 9명,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의사 청년 은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장례는 전처리-영결식-예배-식사 등의 원 스톱 서비스이며, 식당에는 지역예술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함.

- 사전교육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장례준비, 사후 교육은 심리치료와 상담, 힐링의 전 과정을 실시함.
- 가티노 지역 인구 30만중 78%(약 23만명)가 장례 협동조합 조합원 임.
- 매년 이익금 중에 8,000만원을 적립하여 6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신규 협동조합 설립 시 지원을 하고 있음.

#### □ 시사점

- 지역사회의 강력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설립(조직화)하였음.
- 다양한 직종을 가진 무보수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
- 장례 전후 과정에서 가까운 친구 되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진심/진정/힐링)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운영(유가족 그룹미팅, 상담 등)하고 있음.
- 장례 물품 저렴하게 공급(이익 배제) 함.
- 기존 미국 국적의 개인기업의 횡포를 협동조합으로 극복한 사례 임.
- 잉여금을 기금화(재단설립)하여 신규 협동조합 설립 지원 함.
- 연대(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수행 함.
- 한국의 경우, 장례절차와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결합한 새로운 모델 개발(농촌에서)이 가능한 사례 임.
- 필요와 욕구에 기반 한 협동조합 설립의 원칙을 재확인 한 사례 임.
- 한국의 경우, 의료협동조합과 장례협동조합의 업무 협력 방안에 의한 새로운 사업개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 한국신협의 시사점

지역사회 기여도 증진과 조합원 확보 및 지역사회 밀착형관계금융 강화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동과 연대를 통한 참여가 필요함.



### 5. 제리 듀심 카페 - 비스트로

□ 방문일시 : 2015. 6. 1(화) 12:00~13:00

□ 방문장소 : 제리 듀심 식당

□ 담당자 : 파스칼(매니저)

□ 현황 및 특징:

● 홈페이지 : <http://www.bistrojarry2e.com>

● 위치 및 운영시간

: 2590 Jarry Street East, Montreal, Quebec, H1Z 0A3 /

월~금, 8am~5pm, 저녁 및 주말은 예약

● 주요 활동

• 식사 및 케이터링

● 특징

• 경, 중도 지적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직업훈련을 겸한 레스토랑.

•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손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만든 하모니가 성공 비결.

• 음식의 질과 세련된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며 손님들은 지적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됨.

- 몬트리올의 대표적인 사회경제 개발구역인 라토후 지역의 ‘태양의 서커스’ 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 이곳은 쓰레기 매립장이었음.
- ‘제리’ 라는 말은 교육생이란 뜻으로 ‘경미한 장애’ 를 가진 장애인을 간단한 절차로 요리나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식당의 실습을 통해 다른 곳의 식당으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013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임.
- 지적장애인들을 통해 서빙하게 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손님에게는 차별인식을 극복하게 하는 일을 수행.
- 썬미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시식회나 소개, 그리고 재능을 인정받도록 하고, 관광객을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매장에는 장애인들의 그림과 손수 만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 돕고 있음. 6개월을 단위로 교육하고 있으며, 3-4명은 썬빙, 주방음식은 6-8명이 담당함. 현재 취업은 1명.

□ 시사점

- 장애인들의 자조, 자립을 도우며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사례 임.(사업모델이 몬트리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끈임 없는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자존감 회복과 함께 각자의 삶을 개척하도록 하는 방식이 인상적 임.
- 노원구의 자폐아 학부모모임의 ‘카페운영’ 과 비견됨.

□ 한국신협의 시사점 :

현재 몇몇 단위조합(성남주민신협 등)에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협의 정체성 회복과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보편화 할 필요가 있음.

## 6. 등산용품 전문 협동조합 (MEC)

- 방문일시 : 2015. 6. 16(화) 14:00~15:00
- 방문장소 : 몬트리올 매장 견학
- 담당자 : 김창진 교수 설명
- 현황 및 특징 :

- MEC은 캐나다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360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등산 및 레저 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협동조합 임.
-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캐나다 최대 소매협동조합으로 현재 약 1,50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연매출의 1%를 환경보호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자체개발 상품, 서비스, 문화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음.
- 1971년 등산을 좋아하던 4명의 벤쿠버 젊은이가 의기투합하여 만든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6명의 창립멤버가 65달러의 자본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운영시작 하였음.
- 광대한 산악지대와 풍광이 빼어난 수많은 강과 호수를 끼고 있는 캐나다의 특성상 야외 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착안한 협동조합으로, 캐나다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 전형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국내 제작이 어려워 아시아 국가에서 만들고 있으며, 외주제작을 맡길 때는 노동법에 준수하는지 반드시 관리. 노동기준을 어길 시에는 납품계약 철회 함.
- 글로벌기업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캐나다인의 수요에 충실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 있음. 외국인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방식의 시스템으로 운영 함. 외국인만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온라인 판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함.

□ 시사점

-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을 가장 중요한 협동조합의 가치로 설정하고 있음.
- 총회에 더 많은 조합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화상으로 진행하며, 일상적으로 조합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조합원의 참여와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
- 조합원들의 만족도 충족과 사업체로서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매년 잉여금 중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신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며,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여가 생활이 용이한 캐나다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적절하고 현실적인 등산용품 및 아웃도어 상품을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로서, 협동조합 사업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사고하면 가능한 사업모델이 풍부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7. 몬트리올경영대학원협동조합 (HEC-Montreal)**

- 방문일시 : 2015. 6. 17(수) 13:00~14:00
- 방문장소 : 대학원협동조합 운영 식당 및 매장 견학
- 담당자 : 김창진 교수 설명
- 현황 및 특징 :

- 홈페이지 : [www.coophec.com](http://www.coophec.com)
- 위치 : 5255 AVENUE, DECELLES, BUREAU 2340, MONTREAL, QUEBEC H3T 2B1
- 주요 활동
  - 문구류 판매, 컴퓨터 및 프린팅 서비스, 레스토랑, 케이터링 등
- 특징
  - 학생 협동조합
  -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HEC-Montreal 구성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  
 • 학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발 맞춰 사업영역 확대

- 1944년 10월, 15명의 학생이 모여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시초가 되었음. 학교의 적극 지원 속에 집단적 소유와 민주적인 운영으로 학내 공동체에서 점점 발전하였음.
- 교재 판매에서 시작하여, 문구류, 푸드 코트, 프린팅 사업과 레스토랑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하였으며, 2015년 총 매출은 약 1,300만 달러에 직원 수는 100여명에 달함.
-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HEC-몬트리올 구성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한다고 함. 또한 대학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헌신하고 대학사회에 모범이 되고자 노력 함.
- 임원 구성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졸업하면 관계성이 떨어지는 재직 학생보다는 학교 직원들의 비중이 더 많다고 함.

□ 시사점

- 퀘벡에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몬트리올 경영대학원 협동조합은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의 범위나 영역을 학교 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며 사업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외부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품질이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교내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몬트리올 시장 등 저명인사들의 모임 유치 등)
- 초, 중, 고, 대학 과정에서 협동조합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업모델의 학교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며, 향후 우리나라도 교과 과정에서 협동조합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사례 임.

□ 한국신협의 시사점

1. 지역사회 밀착형 관계 구축의 관점에서 대학과의 협력관계 필요

- 관련학과(사회적경제/사회적금융) 장학금 지원, 신협 직원들의 관련학과 공부를 통한 역량 및 전문성 강화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신협을 알리는 프로그램 운영(홍보, 캠프, 연수 등), 대학의 협동조합과의 거래, 협력 등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사회 밀착형 관계 구축의 관점에서 초, 중, 고 학교들과의 관계 구축

- 신협+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관계 구축이 필요 함.(업무협약)
- 협동조합, 경제(금융, 재무), 사회적경제 교육 실행, 다양한 공동행사 기획하고 실행(경제 또는 금융 Day 운영 등)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수신 상품 개발과 연계하여, 수익금(이자)의 일부를 기금화하여 학교 운영의 재정적 지원도 가능함.
- 학생들을 미래의 조합원 확보하고, 더불어 학부모들의 조합원화도 가능함.
-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할 필요가 있음.



8. 메이플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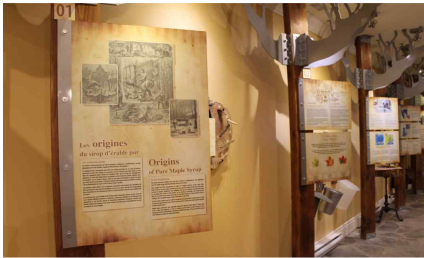
- 방문일시 : 2015. 6. 17. 16:00~17:00
- 방문장소 : 퀘벡 매장 현장 견학
- 담당자 : 김창진 교수 설명
- 현황 및 특징 :

- 생산량에서는 미국이 최대이나,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곳은 캐나다 임.
- 최초 메이플시럽 생산 농민은 중간상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므로, 농민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협동조합을 결성 함. 전체 농부가 다 가입한 것은 아니며 일부가 가입함.
- 숲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나무의 경작권만을 농민이 갖게 되며, 생산량의 80%는 협동조합이, 그리고 20%는 개인업자가 경작하고 있음.
- 식품이기에 규제가 심함. 농장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특수품목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초기 공장의 기계를 지원받음.
- 상품은 20여가지로 시럽, 화장품, 비누 등이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지원책으로 공무원들의 출장 시 기념품으로 사용토록 권유하고 있음.

□ 시사점

- 캐나다 정부가 국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지정하여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이해 당사자(농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 하였기에, 건강하게 성장 발전하였음.
- 한국에서는 지역의 특화상품 전략이 필요한데 한곳이 잘되면 너도나도 하는 경향으로 결국 과열 경쟁에 의하여 특화상품이 없는 결과가 나타남.(예 : 진안의 홍삼과 금산, 풍기의 인삼은 동일 품목)





## 9. 라 바베리 (La Barberie)

- 방문일시 : 2015. 6. 17. 19:00~21:00
- 방문장소 : 라 바베리 주점
- 담당자 : 김창진 교수 설명
- 현황 및 특징 :

- 홈페이지 : [www.labarberie.com](http://www.labarberie.com)
- 위치 및 운영시간 : 310, Rue Saint-Roch, Quebec, QCG1K 6S2 / 연중무휴 정오~1am
- 주요 활동
  - 맥주 양조, 점포내/외부 판매
- 특징
  - 퀘벡 최초의 노동자협동조합
  - 협동조합간의 협동(유통망)으로 경비 절감 및 브랜드 파워 확보.
  - 라발 대학교와 공동으로 환경 프로젝트 진행
  -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근무자들이 공평하게 나눔.

- 1997년 맥주에 대한 열정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운영한 퀘벡 최초의 작은 맥주 양조장 협동조합이며, 3명의 친구가 각자 4,000달러씩 출자를 했고, 지역개발협동조합(CDR)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받고 연대 경제금고와 지역사회공동체 경제개발센터에서 대출을 얻어 설립하였음.
  -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운영하며, 협동하는 사업 방식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한 결과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컨설팅 후 생맥주뿐만 아니라 현재는 병맥주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음.
  - 현재 시간제(비조합원) 근무자는 25명이며, 16명의 출자 조합원이 일하고 있음. 200여 가지의 맥주 제조 레시피를 가지고 매년 60개 종류를 만들고 있고, 매년 여덟 종류를 선보인다고 함. 매년 3~4만 리터를 생산하며 전체 매출의 10% 정도는 매장 판매(4.5~5달러)이고, 나머지는 퀘벡 전역에 위치한 300여 점포에 공급(5~7달러) 됨.
  - 현재 퀘벡 전역에 위치한 9개 소규모 협동조합 양조장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레시피로 병맥주를 생산하여 같은 브랜드로 퀘벡 지역에 납품하며, 운송 역시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운송비를 절감하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여 브랜드파워를 갖추고 있음.
  - 매일 매장에서 발생한 팁과 매출의 일정부분을 근무자들이 똑같이 나누며, 나누는 방식은 상호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 함.
  - 많은 양의 물과 에너지가 필요한 맥주 생산의 특성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절약하는 방법에 관하여 라발 대학교와 함께 환경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생산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병맥주의 수거 및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음.
- 시사점
-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만 있다면 협동조합의 사업모델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 임.
  - 젊은이들의 협동조합과 일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 임.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 됨.
  -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갔음.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할 사례 라고 할 수 있음.
  - 퀘벡주의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지역개발협동조합(CDR)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0. 데잘당 연대경제금고

- 방문일시 : 몬트리올(6. 16. 14:00~16:00)/퀘백(6. 18. 14:00~16:00)
- 방문장소 : 몬트리올 사무소/퀘백 본부
- 담당자 : 장 엔제벨
- 현황 및 특징 :

- 홈페이지 : <http://www.caissesolidaire.coop>
- 위치 : 155, boulevard Charest Est, Bureau 500, Québec, Québec, G1K 3G6
- 주요 활동
  - 집단기업 및 사회기업,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연대에 기여
  - 사회경제기업에게 보증대출 제공
- 특징
  - 지역적 기반이 아닌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적 기반에서 탄생.
  -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맞는 상황을 분석할 수 있

는 전문가를 고용,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을 검토, 조정.

- 민중금고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중시. 데잘당이 원칙에 집중하도록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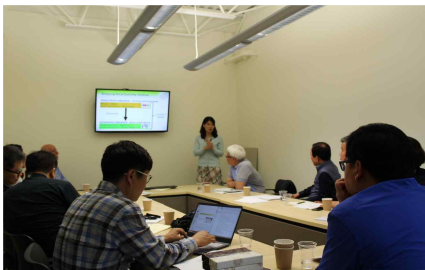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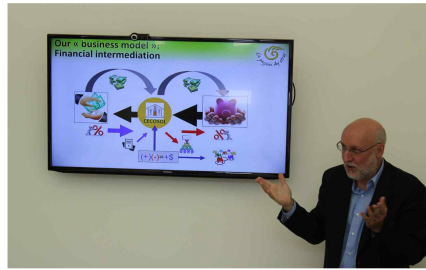
- 연대경제금고는 데잘당 그룹의 회원조직으로, 사회와 연대하고 개인도 집단의 일원으로 참가함으로써 개인의 사회화를 추진함. 회원은 노동자 630명, 협동조합669개, 비영리조직1,137개, 문화조직(문화NGO, 박물관 등) 등의 2,796개의 집단적 기업과 244의 일반기업, 11,754명의 개인 등을 포함하는 14,794의 조합원(11754의 개인중 이누아트족이 4200명 포함)을 보유하고 있음.
- 자산 1조 4천 6백억원, 이사회는 선출직 15명으로 전원 무료봉사(이사는 두 가지 직업)인데, 이사가 비용을 받게 되면 경영성과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미션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현재 직원은 100명이 근무하고 있음.
- 직원들의 월급 책정은 일반직원 대비 대표의 비율은 현재 1 : 6 임.
- 노동조합에서 출발하였고, 노동자의 자존감 회복에 기여하였음.
- 미션 :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2.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홍보, 3. 사회적금융을 통한 사회변화
- 퀘백의 사회적금융 유형 : 1. 은행, 2. 정부 또는 기업의 펀드, 3. 사회투자금융, 4. 혼성기금(정부, 신탁, 기업 등), 5. 크라우드 펀딩(현재 준비 중)
- 전체 여신 중에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이 76% 이고, 그중에 주택협동조합 비중 37% 임.
-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의 기준 : 1.결사체, 사업비전을 동등하게 평가, 2. 사회적가치, 지속성 등을 주요하게 고려 함.
- 데잘당그룹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여신 등)이 이루어지며, 데잘당신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자부심이 강함.
- 임원들의 무보수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함.

□ 시사점

- 협동과 연대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숙된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협동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음.
- 한국도 시급히 각종 기금, 펀드, 투자기금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신협의 시사점

- 전통의 은행업무 이외에 출자, 투자, 기금,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기법의 도입 필요성이 있음.(법과 제도 개선 사항)
-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기금 또는 기업펀드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지자체+사회적경제 조직+기업+신협의 공동 기금 또는 펀드 조성)



## 11. 데잘당 박물관

- 방문일시 : 2015. 6. 18. 10:00~12:00
- 방문장소 : 데잘당 박물관
- 담당자 : 플로렌스(박물관 홍보담당)
- 현황 및 특징 :

- 홈페이지 : <http://www.desjardins.com>
- 위치 및 운영시간 : 6, rue du Mont-Marie, Lévis, Québec, Canada G6V 1V9  
/ 10am~12pm, 1pm~4:30pm(월~금), 12pm~5pm(토~일)
- 주요 활동
  - 초창기 데잘당 활동을 재현하고 보존. 전시물의 대여 및 기증
  - 학생 및 대중, 해외 방문자(DID와 연계)를 대상으로 한 안내
  - 데잘당운동에 관한 역사 연구 및 출간
- 특징
  - 데잘당 부부가 삶의 대부분을 보낸 공간이자 저축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요람
  - 1983년 퀘벡 정부로부터 문화재 및 박물관으로 지정

- 데잘당 기념관은 반세기가량 데잘당 부부가 아이들을 낳고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지냈던 장소이자, 1900년부터 1906년까지는 데잘당 운동의 시작점인 레비 민중금고의 사무실이었음. 또한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의 저축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요람이기도 함.
- 데잘당과 그의 아내 도리멘 데잘당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데잘당 그룹 내 알퐁스 데잘당 역사협회가 1981년부터 소유, 운영하고 있음. 1982년에 대중에게 공개하였고 이듬해 퀘벡 정부로부터 문화재 및 박물관으로 지정되었음. 처음에는 해설센터로 운영되다 2001년에 박물관으로 개장하였음.
- 가난한 집안 태생인 데잘당은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퀘벡에서 3년의 언론인 생활을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신문을 만들기 위해 16시간씩 일하다가 한 달 만에 폐간함. 연방정부 국회의사당에서 1892년 불어 속기사로 취직, 25년간 일함. 1897년 어떤 사람이 150\$을 빌렸다가 갚을 때 이자가 3,000% 라는 것을 듣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1897년 협동조합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필폰스 뱅크' 라는 책을 읽음.

- 책을 읽고 주변의 프랑스, 벨기에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할지를 물음, 1900년 1월에 자신의 집에 협동조합금고를 만들, 처음 만들어진 이사회는 자원봉사자로 출발, 139명이 참석했으며, 레비 인구의 10%로에 해당함.
- 알폰스데잘당은 1879년 도리멘데잘당과 10명의 자녀를 기림, 도리멘 데잘당은 데잘당이 속기사로 의사당에 가면 6개월 정도를 자신이 협동조합의 일을 이어감. 당시 노동자의 월급이 400\$인데 알폰스 데잘당은 1,800\$이었으며, 중산층에 속하는 편임.
- 데잘당은 가톨릭신자이며, 후에 주교의 도움(교회의지지, 참여의 독려, 후에 1번의 조합원이 산부였음)으로 협동조합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1905년 법제화 노력, 1906년에 법제화, 출자금은 5\$로 시작, 당시 노동자에게는 큰돈이기에 1년 분납(매주 10센트씩 분납하고 나머지 20센트는 저금함) 처음 협동조합은 150개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1932년에 연합회 안으로 들어옴. 데잘당의 동기는 어려운 형편의 가정생활로 인해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측은지심과 모두가 평등한 1인1표가 매력적 동기임. 5달러를 맡길 수 있었던 신뢰의 동기는 공동체에서 명망이 있었고, 영국은행과 접근성이 문제 되었으며, 성실하고, 신부들의 도움이 지대한 영향을 줌.
- 자녀들은 데잘당신협에 직접 가입한 적이 없고, 오로지 조합원으로 있었음.
- 1913년 교황으로부터 훈장을 받음(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에 너무 고맙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함) 1914년 1차 세계대전 시 지병으로(신장병) 모든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옴. 1920년 세상을 떠남.(1854-1920년)
- 그의 아들이 7살에 죽었을 때 아들 통장의 출자금 5\$을 그대로 둠. 학생부터 협동조합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생 때부터 협동조합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의 어린이학생들이 데잘당기념관을 방문하며 꾸준히 교육이 이어지는 것임.
- 박물관의 주된 업무는 데잘당신협운동의 창설자가 실제 협동조합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던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물품들을 보존하는 것임. 그리고 학생 및 대중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알리고 창설자가 가졌던 생각을 전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또한 데잘당신협운동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진행하며, 데잘당의 임직원 및 조합원들에게 일차적으로 정신을 전파하고 관련 책을 출판하여, 가치와 의미를 유지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데잘당그룹의 국제개발본부(DID)와 협력하여 수많은 나라의 방문자들을 맞아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전시물의 대여 및 기부도 기념관의 업무 중 하나 임.

- 시사점
  - 규모는 크지 않고 소박하고 정갈하게 꾸며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고, 상당양의 과거 데잘당 관련 전시물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숙연해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됨.
- 한국신협의 시사점
  - 역사가 55년이 되었는데, 과거의 자료들을 모아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2. 데잘당 역사협의회(SHAD)

- 방문일시 : 2015. 6. 18. 13:00~15:00
- 방문장소 : 퀘백시 데잘당 50주년 기념 건물
- 담당자 : 삐에르 뿔랭(역사협회 홍보이사)
- 뿔랭은 알폰스 데자르팅에 약 20년 전부터 근무함



- 데잘맹 역사협회(SHAD)는 1979년 설립되었고, 데잘맹 그룹과 그 설립자들의 역사와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함을 가치로 함.
- 1981년부터 알퐁스 데잘맹의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역사협회는, 데잘맹 부부의 유산을 보호하고 널리 알리며, 역사를 연구하고 해석을 하는 것을 주 활동분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권의 역사책을 발간하였음.
- 뿔랭박사로부터 데잘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 : 당시 퀘벡은 160만명 중 2/3가 시골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외곽에 거주하는 자는 인구는 많으나 발전이 더디고 도시는 산업화로 저임금, 빈부격차, 일자리문제가 심각했음.
- 당시 농민들은 은행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당시 은행은 사업가와 부자만 상대함. 따라서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동했는데, 19세기 중반에 50만명 이상이 미국으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함.
- 이 상황에서 데잘맹은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노동자의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특히 데잘맹부부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리더로 각종 모임의 활동을 하였음.
- 데잘맹그룹은 지역금고와 연합회로 구성되었고 주범아래 있음. 1906년 주범으로 신탁이 인정됨. 전체 자산과 조합원의 50%가 퀘벡에 있으며, 퀘벡이 중심이나 온타리오주나 메인주에도 비합법적 신탁의 확산으로 존재함.
- 자산은 2293조로 캐나다 전체 금융기관 중에 6위이며, 미션은 주민과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임.
- 가치는 인간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개인적 헌신과 기여, 민주적 활동, 엄격성과 성실성, 지역사회의 연대임.
- 활동의 변화

1900-45년	1945-60년	-80년	이후
-대출과 저축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종신탁 -뮤추얼펀드 -민중금고의 상호서비스	-ATM운영 -사무자동화(IBM) -최초의 전산화

- 데잘맹 정신의 유지를 위한 핵심요인은 교육, 그리고 가치와 의무를 잡지를 통하여 알리며 교육시킴.(1935년부터 ‘데잘맹메저진’을 통한 ‘협동조합의 가야할 길’을 전달하고 현재까지 발행 중 임)
- 그리고 1965년부터는 데잘맹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가치, 역사, 정신을 알리는 교육기관 설립 함. 협동조합 대학원에서 임직원(선출이사직 포함)의 가치교육을 실시함. 1985년 ‘데잘맹의 사상과 철학’을 출간, 많은 이가 읽었음.

- 시사점
  - 데잘맹의 역사와 가치를 현 임직원 및 조합원 그리고 일반주민들에게 꾸준히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과거의 근거자료 등을 잘 보관하여 전시하며 유지 관리하고 있음.

- 한국신탁의 시사점
  - 과거가 존재하기에 현재가 있고 또한 미래가 있다는 격언처럼, 한국의 신탁도 역사를 제대로 보존하고 기록하며, 미래의 발전방향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찾아내고 성찰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함.



### 13. 국제개발 기구(DID)

- 방문일시 : 2015. 6. 18. 15:00~16:00
- 방문장소 : 퀘벡시 데잘맹 50주년 기념 건물
- 담당자 : 장 베르나(홍보실장)
- 현황 및 특징 :

- 1970년에 데잘맹 그룹 내에 국제 개발기구가 만들어지고, 개발도상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45년간 활동 하고 있음. DID는 국제적인 NGO라 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은행 이용률은 탄자니아17%, 이프리카 2%, 캄보디아 19%, 중앙아시아 5%이며 캐나다는 96% 임.
- DID의 미션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촉진과 개인, 공동체의 자산을 발전시켜 자조성을 강화하는 것임.
- 현재 60개국을 대상으로 1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며, 보험, 농업금융, 기술지원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개발참여를 돕고 있음.
- 개발도상국 지원 활동의 3가지 전략
  - 전문가들의 컨설팅(1970년 이래)
  - 1998년부터 현지 협동조합에 투자(4000만 달러 투자), 2009년부터는 중소기업 창업과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센터” 설립
  - 맞춤형 해결방법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회계, 창업, 소액보험, 주택금융, 학교지원, 투자, 등을 형편에 맞게 적용함. 초기에는 지역사회의 니즈를 파악 후, 맞춤형 해결책 지원, 풀뿌리 금융서비스를 위해 단위조합의 욕구 충족과 지역 및 정부등과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음.

□ 시사점

- 오랜 역사와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DID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자조,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데잘맹의 가치를 전파하고, 신뢰와 믿음을 획득하는 계기되었음.

□ 한국신협의 시사점

- 몽골 등에 신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폭 넓은 국제협력 및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지원활동의 필요성이 제기 됨.
- 국제협력이나 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따르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신협의 오랜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 또는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며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VIII. 시사점 종합

### 1. 한국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 측면에서

- 1)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동등한 민관 파트너쉽과 시스템
  - 퀘벡주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정책은, 주정부와 전통의 민간 협동조합 영역, 새롭게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민간 사회적 경제영역, 각종 기금(데잘맹 기금, 노동자 기금 등), 다양한 투자나 펀드를 통한 사회적금융 그리고 대학 등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동과 연대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고 발전 되어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 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정부나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영역에서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간의 활발한 협동과 연대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2)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을 지원 중간지원기관 - CDR<sup>2)</sup>

-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 등과는 달리 독특하게 CDR(지역개발협동조합/퀘백주에 11개)이라는 조직이 지역사회의 신규 협동조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협동조합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경우 중간지원센터의 역할로서, 활동과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서울시상담지원센터의 센터 운영 및 활동방식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이 있음.

## 3) 연대협동조합의 활성화

- 퀘백에서 특징적으로 발달한 협동조합의 유형으로서, 한국으로 표현하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개인 조합원,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노동자 조합원, 협동조합의 목표와 가치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조직(기업 또는 단체)으로서 후원 조합원으로 구성 됨.
- 특히 소규모 인구의 농촌 또는 중소도시에서 발달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편으로 활용 됨. 또한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강력한 네트워크의 결과물이기도 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자부심이 강함.
- 한국의 경우, 아직은 시기상조 이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돌봄(어린이, 노인)영역과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영역(의료, 교육, 장례 등)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활발한 협동과 연대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 됨.

2) 아쉽게도 이번 방문에는 현지 사정으로 CDR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필요와 욕구를 개발하고 설립 및 경영지원, 기금 및 대출의 연계, 경영컨설팅 등 협동조합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퀘백주에는 현재 11개 조직이 있고 연합회도 구성되어 있음.

## 4) 기금, 투자, 펀드 등의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과 운영과정에 다양한 기금, 투자, 펀드 등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며 경영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이제 막 출발한 협동조합과 아직은 스스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탁, 농협 등의 금융협동조합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 임.
- 그러므로 시급히 다양한 기능의 사회적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금융협동조합들도 전향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5) 학교 협동조합과 청년들의 협동조합 설립

- 퀘백주는 학교협동조합 설립이 보편화 되어 있음.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초등 학교 때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청년들도 지역사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청년들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함.
- 또한 초, 중, 고등학교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과 과정을 신설하여,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하고, 직접 학교 내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품성을 개발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며, 또한 다양한 경제활동 방식의 경험과 진입을 통한

여, 근본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2 한국신협의 측면에서

### 1) 협동과 연대의 가치 실현

- 데칼당신협은 지금까지 협동과 연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지금에 이르렀음.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이를 데칼당신협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였음.
- 매년 1조(2013년 기준)에 가까운 기금을 조성하여 퀘백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기업 또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음. 이는 협동과 연대라는 설립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이번에 방문한 협동조합 거의 대부분이 설립초기 자금과 운영자금을 데칼당의 기금 및 저리의 대출 지원으로 많은 도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감을 할 수 있었음.
- 한국 신협의 경우,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새롭게 출범한 사회공헌재단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이 높은 의료, 햇빛발전소, 교육, 돌봄, 학교 등의 영역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시스템으로 중앙회 및 지역본부 차원의 ‘(가칭)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 데칼당 연대경제금고는 전체 여신 중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약 76%에 달 함. 데칼당 신협의 정신인 협동과 연대를 옹골케 실현하고 있는 신협이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매우 강함.
- 한국의 경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 모두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임.
-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우선 현재 법과 제도의 틀에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됨. 특히 신협, 농협 등 금융협동조

합들이 금융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함.

### 3) 지역사회 밀착형 관계금융 구축

- 캐나다의 환경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특히 소규모 단위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의 네트워크가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었음.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설립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음. 이러한 역동적인 네트워크 활동은, 각각의 협동조합들도 발전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도 기여하고 있음.
- 한국의 신협도, 지역사회밀착형 관계금융 강화 차원에서, 단위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영역과의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단위신협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은 의료, 돌봄, 교육, 햇빛발전소 등의 사회 서비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조합원의 연령대가 고령화되어 가는 신협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내의 초, 중, 고등학교와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한 연대를 통하여 미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간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의 대학교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의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학협력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 4) 박물관 건립과 교육시설 확충

- 데칼당의 경우, 박물관을 통하여 데칼당의 정신을 기리고 조합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데칼당의 정신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 또한 역사를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노력들을 교육과 연계시키며,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교육훈련에 활용하고 있었음.
- 한국신협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신협의 정신과 전통을 세상을 알리는 박물관을 건립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교육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수원을 확충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궁극적으로 신협의 우호세력으로 확보 할 필요가 있음.

#### 5) 국제협력

- 데칼맹의 국제협력은 4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 이는 단순히 협력을 넘어 데칼맹의 정신과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믿음과 신뢰는 부메랑이 되어 데칼맹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한국신협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에 나서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협력과 지원의 역할 수행하여, 한국신협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신협 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함.

## IX. 결론

- 115년의 무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퀘백주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캐나다와 전 세계에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는 데칼맹신협의 모습은 한국신협의 입장에서 보면 경이로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 지금의 데칼맹신협이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협동과 연대의 설립정신을 유지 발전시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 비영리단체 등과 긴밀한 협동과 연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가치와 정신이 퀘백주 전체로 확산되어 전체 인구 800만명에 협동조합 조합원이 880만명으로 협동조합의 천국이 되었고, 특히 캐나다의 지리적 환경(넓은 땅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을 고려할 때, 이익과 상관없이 소규모 인

구(2, 3천명)의 농촌이나 소도시까지도 지점을 설치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던,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애민(愛民)정신이 있었기에, 퀘백주 인구 800만 중에 580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신협의 성장이 가능했으리라 여기 진다.

- 한 마디로 데칼맹 신협은 퀘백 사회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영역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퀘백이라는 사회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동이 보편화되어 있고, 몸에 잘 맞는 옷처럼 아무런 거부감이 받아들이며,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협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지금 현실의 데칼맹 신협도 퀘백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내부적인 진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조직이든 항상 위기와 진통은 있는 것이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신협 또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신협의 경우도, 이러한 애민정신과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내적으로는 단위조합의 조합원 간의 활발한 협동, 단위조합간의 협동, 더 나아가 우리사회를 비롯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관계금융을 강화하고, 우리사회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획득하는 것이, 신협의 진정한 정체성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한다는 것을, 데칼맹 신협과 퀘백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 한다.
- 한편, 한국의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관점에서 보면, 퀘백의 사례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촘촘하고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동하고 연대하며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성은 퀘백 특유의 연대협동조합을 탄생시켰고, 이를 통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신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었다.
- 우리나라는 현재 8,000개에 육박하는 일반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결과도 있고,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사회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뿌리내리게 하고 바람직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며 자조·자립·협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 협동(協同)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함’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개별화되어 있는 개체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마음과 힘을 모아’ 합의된 목적을 공동으로 실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보통의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쉽지 않다고 한다.
- 그렇게 때문에,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타심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 된다. 또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나눔이라는 철학이 함께 동반되어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한국사회가 일등만이 살아남는 처절한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협동하며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전환되어, 살맛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며, 끝으로 연수 일정이 퀘백주 전체 사회적경제 관련 모임과 겹치면서, CDR과 주택협동조합 등 몇몇 기관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다음을 기약해 본다.